

길동생태공원



2013 봄 ·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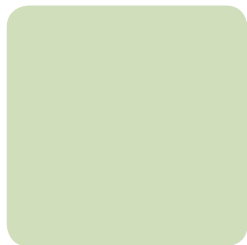
길동

• 도시에 사는 너구리 •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 • 나비 달력 • 멀리 가까이 더 가까이



2013

A stylized, black calligraphic logo that flows from the top right, curves around the year '2013', and extends towards the bottom right. The logo consists of several thick, expressive strokes, with the top part resembling a '7' or a stylized 'W', and the bottom part resembling a 'Z' or a series of connected loops.



2013 봄 · 여름

각 주

04 오목눈이의 편지

06 WILD LIFE

도시에서 사는 너구리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
나비 달력

20 공원의 생물상
딱정벌레

34 오감느낌
멀리 가까이 더 가까이

38 프로그램 소개
도시, 생태를 꿈꾸다

48 길동이 좋아요

52 곤충도감





오목눈이의 편지

공원을 매일 돌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나는 탐방객이 거의 없는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 공원을 도는 것이 가장 좋다. 사람소리 대신 새소리, 개구리 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으면 경중경중 뛰어다니거나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고라니는 만나기도 하고, 잠자리를 찾아 한적한 습지 한 귀퉁이를 차지한 흰뺨검둥오리 한 쌍을 방해해서 미안하기도 하다. 눈이 밤새 내린 날, 우리 아저씨들이 데크의 눈을 치우기 전에 공원을 돌다보면 옷장 속으로 눈의 나라에 들어갔던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우리 공원은 어떤 의미일까? 그간 탐방시간을 2시간을 정해두었다. 그 이유는 공원의 생물들에게 사람들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관찰로가 좁다보니 탐방객들로 인한 안전과 고적감의 상실을 고려했고, 지금까지 탐방객들의 체류시간을 고려했던 이유였는데, 이제 체류시간 제한을 없애려고 한다. 음식물 없이 공원을 들어와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듯 싶긴 하나,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간단한 차 정도만 가지고 들어간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공원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생태공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관찰'을 하고 '학습'을 받는 곳이라





는 곳이다. 생태공원의 조성 시 생물들에게 살 땅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사는 생물들을 관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환경보존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있었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없어도 혼자서 알아갈 수 있는데 요즘은 다들 너무 서둘다 보니 내 아이가 발견하기도 전에 가르쳐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 때도 있다. 프로그램은 관찰과 학습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관찰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며, 그것보다 공원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 곳에 함께 살고 있는 나는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들어왔다면 아이가 놀며 배울 수 있도록 천천히 두고 볼 수 있는 놀이터로 삼았으면 좋겠고, 엄마와 아빠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삼았으면 좋겠다. 연인들은 사랑을 나누고, 노인들은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종교가 있다면 자연을 찬양하고, 아이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물가에 앉아 10분만 관찰하다 보면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내 마음에만 갇혀 있던 것에서 자신을 놓아 나란 존재는 결국은 자연의 일부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은 흐른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를 산다.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자연과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기를 바란다.

오목눈이는 공원 코디네이터입니다. 코디는 생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생물종 조사, 교육하는 봉사자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너구리

생태공원에는 포유류가 10여종 삽니다. 공원에 놀러오는 고양이와 개 외에도 고라니, 두더쥐, 다람쥐, 청서 등. 그리고 너구리가 삽니다.

너구리는 도시에 사는 동물로는 꽤 유명하죠. 예전에는 도시의 공원에서 너구리를 찾아다니는 TV 프로그램도 있었고, 먹을거리가 부족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이 종종 CCTV에 잡히기도 합니다.





길동생태공원에 사는 너구리는 번식도 합니다. 한 해에는 새끼를 4마리나 데리고 다니는 걸 보았고, 해질 무렵에는 꽤 작은 놈도 보았거든요. 능청 맞는 사람을 너구리같다고 하는데, 정말 다른 동물과 달리 너구리는 사람을 만나도 겁싸게 도망가기 보다는 한참을 빤히 쳐다봐서 황당했죠.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황소개구리가 예전처럼 많지 않은 것이 너구리 때문이라고 하네요. 너구리가 황소개구리의 사냥꾼인셈이죠. 그래서인지 공원에서도 너구리가 습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황소개구리 외에도 다른 양서류, 작은 새, 들쥐, 지렁이, 나무 열매 등 너구리의 먹잇감이 풍부하니 살만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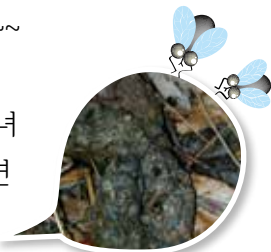
너구리는 개과의 동물로 몸무게는 4~10kg, 주둥이는 뾰족하고, 몸에 비해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둔해 보이기도 합니다.

먹이를 충분히 먹고 날씨가 추운 지방에서는 겨울잠을 자기도 한다고 하는데 공원에서는 가끔 개과의 발자국이 겨울에도 찍혀 잠을 자다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한번은 공원에서 아픈 너구리를 만나 서울대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며칠 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픈 야생동물을 만나면 어떻게든 살려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한편은 그냥 살던 곳에서 자연사하는 것이 동물의 운명이 아닐까,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전 관찰로에서 떨어진 숲 속에서 똥을 봤는데, 무더기로 있는 것이 딱 너구리 똥 같더라구요. 너구리는 똥을 한 군데서 싸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니만. 냄새를 맡아보았더니. 이크~~ 왜만한 사람 똥 저리 가라할 만큼 냄새가 지독!! 게다가 종이조각까지 똥에 섞여 있는 것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이 먹는다고 하더니만~~

대부분의 야생동물처럼 너구리도 주로 밤에 다녀 낮에는 만나기 어려워요. 운이 좋아 낮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

꽃은 참 예쁘다 / 들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봄에 딱 맞는 노래 같아요.

봄이 되면 꽃다지, 냉이로 시작해서, 봄까치풀, 별꽃이 피고 현호색, 동의나물, 바람꽃에 이어 금낭화, 수선화, 제비꽃, 양지꽃 등 공원은 금새 꽃들로 채워집니다.

크고 아름다운 꽃도 좋지만, 작고 은은한 들꽃은 소박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이 들어 더욱 소중하답니다. 여러분들도 집 주변에 흔한 들꽃을 유심히 들여다 보세요. 저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들꽃의 매력에
힘껏 빠져 보세요~~



냉이



소리쟁이



복수초



- ① 토끼풀 ② 냉이
- ③ 돌나물 ④ 사마귀풀
- ⑤ 개불알풀 ⑥ 노루귀
- ⑦ 고마리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⑧ 붓꽃

⑩ 지장보살

⑫ 벌씀바귀

⑭ 여뀌

⑨ 개사상자

⑪ 까치수영

⑬ 피나무



부처사촌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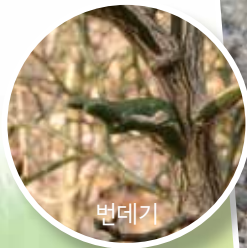


뿔나비



나비 달력

나비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죠. 나비의 아기인 애벌레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애벌레를 좋아하진 않아요. 애벌레는 아기벌레의 준말입니다. 애벌레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풀만 먹어요. 그래서 다양한 나비를 보려면 애벌레의 먹이인 식물이 다양해야 합니다. 길동생태공원에서는 지금까지 70여종의 나비가 관찰되었고, 공원의 생육조건에 맞는 식물을 조금씩 식재하며 다양한 나비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데기



긴꼬리제비나비



남방부전나비



부전나비

나비마다 겨울을 나는 방법도, 1년에 반복되는 세대수도 달라요.
그래서 배추흰나비처럼 연중 볼 수 있는 나비도 있지만, 갈구리나
비나 애호랑나비처럼 이른 봄에만 보이는 종류도 있고, 봄, 가을로
다른 모습을 한 나비도 있어요.



봄처녀나비

4월

갈구리나비, 네발나비, 배추흰나비

겨울을 성충으로 지낸 나비들이 주로 보여요.

햇볕이 드는 날 들판에서 나비를 찾아봐요.



네발나비



애벌레 (9월)



배추흰나비

5월

노랑나비, 애기세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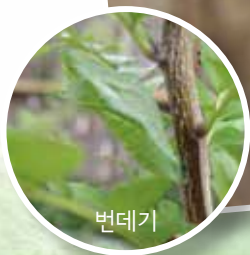
나무와 풀들이 쭉쭉 자라면서 눈에 띄는 나비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들에서, 점차 산에서도 나비를 볼 수 있게 되죠.



6월

호랑나비

꽃샘까지 길이가 긴 꽃들(원추리, 철쭉 등)이 피기 시작하면 주둥이가 긴 대형나비라 할 수 있는 호랑나비과의 나비들이 먹이를 먹으러 다니느라 분주합니다.



7월

부처나비, 푸른부전나비 왕오색나비, 왕자팔랑나비

장마가 오고가지만, 햇볕이 나는 날에는 하루에도 10여종이상의 나비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크기가 작은 부전나비류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구요.



푸른부전나비



왕자팔랑나비

애벌레

8월

흰점표범나비, 큰주홍부전나비 작은멋쟁이나비

표범나비들은 꽃이 지고도 오랫동안 잎을 볼 수 제비꽃과 인동
에 알을 낳습니다. 유난히 아름다운 큰주홍부전나비는 주로 물
가에서 볼 수 있죠. 작은멋쟁이나비는 이름그대로 멋스러운 색
을 자랑합니다.



큰주홍부전나비



작은멋쟁이나비



애벌레



먹부전나비

1과 1은 산이 되고

2와 2는 꽃게가 되고

3과 3은 고양이수염

4와 4는 문어발

5와 5는 나비가 되어 나풀나풀 날아갑니다





주둥무늬차풍덩이

딱정벌레 팀에 대하여



딱정벌레팀

딱정벌레는 곤충의 40%를 차지할 만큼 다양한 종류를 가진 곤충류입니다. 공원에서는 1999년 이후 꾸준히 관찰해왔는데 매년 50-200여종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곤충학을 전공하여 딱정

벌레 중 거저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정부희박사님께서 꾸준히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어 다양한 곤충을 볼 수 있습니다.

딱정벌레팀 선생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모였나요?

곤충을 좋아하구요, 무엇보다 아름다운 딱지날개를 사랑하는 딱정벌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딱정벌레팀은 현재 자원봉사자 4명(이수진, 이윤희, 정승희, 박홍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활동한지는 3년차가 되었구요.



풍덩이



가시길쭉바구미



애반딧불이



언제 조사하시나요?

곤충이 관찰되기 시작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정도 모입니다.
비가 오면 숨어있기 때문에 날이 맑을 때 관찰하구요
한 여름에는 여름잠을 자는 곤충들도 있지만, 4-5월에는 곤충이 주
로 움직이는 대낮에 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탐방로 주변으로는 보리수나무에서 무당벌레가 알부터 애벌레, 번
데기, 성충까지 모두 볼 수 있구요, 습지에 흔한 버드나무류에서도
다양한 잎벌레들을 볼 수 있어요.

관찰로를 벗어나서는 죽은 나무나 딱딱한 버섯을 뒤지기도 하는데,
거저리같은 곤충은 특히 버섯에서 많이 관찰된답니다.

반날개종류는 죽은 동물의 사체에 모이는데, 어느날은 야간 조사를
하는데 반날개가 많이 모여있어 죽은지 얼마안된 동물이 있나보다
추정하고 찾아보니 고라니가 죽어있더라구요



딱정벌레 관찰하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흔히 딱정벌레를 아는 친구들도 무당벌레외에는 하늘소나 풍뎅이 처럼 조금 덩치가 큰 곤충들을 알고 있는데, 자연에서는 1cm도 안 되는 작은 곤충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딱정벌레를 조사할때면, 눈으로 찾아보기도 하지만, 쓸어잡거나 털어잡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봐야 한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 딱정벌레를 잘 관찰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 것들을 모아 2013년 가을쯤에는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딱정벌레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2012년 길동생태공원 딱정벌레 모니터링]

[illegible]

분류군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개알물방개 <i>Laccophilus difficilis</i>	㉠			0	++	++	++	++				
물방개 <i>Cybyter japonicus</i>	㉠			0	+							
검정물방개 <i>Cybyter Brevis</i>	㉠							+				
노랑무늬물방개 <i>Neonectes hatrix</i>	㉠							+				
풍뎡이붙이과 Family Histeridae												
풍뎡이붙이 <i>Merohiste jekeli</i>	㉠			0	+	+						
아무르납작풍뎡이 <i>Heloplepa amurensis</i>	㉠		0	-								
송장벌레과 Family Silphidae											0	
큰날적송장벌레 <i>Eusilpha jakowlewi jakowlewi</i>	㉠			0	+	+	+	+			0	+
곰보송장벌레 <i>Thanatophilus rugosus</i>	㉠		0	㉠	+	+						
밀빠진버섯벌레과 Family Scaphidiidae												
밀빠진버섯벌레 <i>Scaphidium amurense</i>	㉠		0	0	+	++	+	+				+
호랑밀빠진버섯벌레 <i>Scaphisoma hapiroense</i>	㉠						+	+				
반날개과 Family Staphylinidae												
칠줄왕눈이반날개 <i>Ouedius parviceps</i>			-	0	+	+						
꽃체개미반날개 <i>Megalopaederus gotschei</i>				0	-	+	+	+				
금풍뎡이과 Family Geotrupidae												
북방보라금풍뎡이 <i>Egeotrupes laevistriatus</i>				0	-							
사슴벌레과 Family Lucanidae												
애사슴벌레 <i>Macrodercas rectus</i>							+	+				
소통구리와 Family Scarabaeidae												
모가슴소통풍뎡이 <i>Onthophagus lodiens</i>						+	+	+				
<i>Onthophagus ater</i>			0	-								
소요산통풍뎡이 <i>Onthophagus japonicus</i>			-	0	+	+	+					
검정풍뎡이과 Family Melolonthidae												
주황긴다리풍뎡이 <i>Ectinohoplia rufipes</i>				0	++	++	++	++				
큰검정풍뎡이 <i>Holotrichia morosa</i>			0	-		+	+	+				
줄쭉검정풍뎡이 <i>Holotrichia parallela</i>			0	㉠	+							
애우드풍뎡이 <i>Maladera orientalis</i>			0	-								
긴다색풍뎡이 <i>Heptophylla picea</i>						++	++	++				
알모양우드풍뎡이 <i>Maladera cariniceps</i>				0	+	+	+					
풍뎡이과 Family Rutelidae												
주둥무늬자색풍뎡이 <i>Doretus tenuimaculatus</i>			0	㉠	++	++	++	++			0	++
등얼룩풍뎡이 <i>Blitopertha orientalis</i>			0	㉠	+++	+++	+++	+++			0	+++

분류군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탐라병대벌레 <i>Podabrus heydeni</i>			-	0	+							
포졸병대벌레 <i>Podabrus lictorius</i>			0	⊙	+							
병대벌레 <i>Prothemius ciusianus</i>			0	-	-	+	+	+				
수시령이과 Family Dermestidae												
<i>Attagenus unicolor</i>			-	0	+							
세줄알락수시령이 <i>Trogoderma varium</i>			-	0	++	++	++	++				
애알락수시령이 <i>Anthrenus verbasci</i>			0	⊙	+	+	+	+				
빗살수염벌레과 Family Anobiidae												
권연벌레 <i>Lasioderma serricorne</i>			-	0	+							
의병벌레과 Family Melyridae											0	
탐라의의병벌레 <i>Attalus elongatulus</i>			0	-								
<i>Melyridae sp. 1</i>			-	0	++							
누랑무늬의병벌레 <i>Malachius prolongatus</i>			-	0	+	+++	+++	+++				
밀빠진벌레과 Family Nitidulidae												
갈색납작밀빠진벌레 <i>Circopes suturalis</i>			-	0	++	+	+	+				
검정납작밀빠진벌레 <i>Epurea funeraria</i>			-	0	+	+	+	+				
호리납작밀빠진벌레 <i>Epurea parisi</i>			-	0	+	+	+	+				
검정무늬밀빠진벌레 <i>Haptoncus ocellaris</i>			-	0	++	+	+	+				
점박이납작밀빠진벌레 <i>Omosita japonica</i>			-	0	++	+	+	+				
구름무늬납작밀빠진벌레 <i>Omosita japonica</i>			-	0	++	+	+	+				
갈색태알밀빠진벌레 <i>Meligethes denticulatus</i>			-	0	+	+	+	+				
납작알밀빠진벌레 <i>Meligethes placidus</i>			-	0	+		+	+				
꽃알벌레과 Family Phalacridae												
대변이꽃알벌레 <i>Heterolitus thoracicus</i>			-	0	+							
버섯벌레과 Family Erotylidae												
노랑테가버섯벌레 <i>Dacne picta</i>			-	0	+	++	++	++				+
털보왕버섯벌레 <i>Episcapha tortunii</i>			-	0	++	++	++	++				
노랑줄왕버섯벌레 <i>Episcapha flavofasciata</i>							++	++				
쌍점둥근버섯벌레 <i>Aporotritoma consobrina</i>			-	0	+	+++	+++	+++				
<i>Neotriplax lewisi</i>							++					
무당벌레붙이과 Family Endomychidae												
무당벌레붙이 <i>Ancylopus pictus asiaticus</i>			-	0	++	+	+	+			0	
무당벌레과 Family Coccinellidae											2종	
애충점박이무당벌레 <i>Chilocorus kuwanae</i>			0	⊙	++	+	+	+				+

[illegible]

분류군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홍날개 <i>Pseudopyrochroa rufula</i>			0	0	++	+++	+++	+++				++
애홍날개 <i>Pseudopyrochroa rubricollis</i>						+	+					
거저리과 Family Tenbrionidae												
모래거저리 <i>Gonocephalum pubens</i>			-	0	+							
줄무당거저리 <i>Ceropria striata</i>			-	0	++	++	++	++				
구슬무당거저리 <i>Ceropria induta</i>						++	++	++				
흑진주거저리 <i>Platydemia nigroaeneum</i>						+++	+++	+++				+
나도진주거저리 <i>Platydemia recticorne</i>						+++	++	+++			0	+
서울진주거저리 <i>Platydemia marseuli</i>						+	+	+			0	
불우묵거저리 <i>Ulomoa bonzica</i>			-	0	+	++	++	++				
맹들이거저리 <i>Plesiophthalmus nigrocyameus</i>			-	0	+	+	+	+				
산맹들이거저리 <i>Plesiophthalmus davidis</i>						++	++	++			0	
털보임벌레붙이 <i>Luprops orientalis</i>						++	++	++			0	
임벌레붙이 <i>Lagria nigricollis</i>			-	0	++							
모항산거저리 <i>Anaedius mroczkowskii</i>												+
하늘소과 Family Cerambycidae												
톱하늘소 <i>Prionus insularis</i>			0	-								
줄각시하늘소 <i>Pidonla gibbicollis</i>			0	-								
홍피하늘소 <i>Phymatodes maaki</i>			0	-								
붉은산꽃하늘소 <i>Corymbia rubra</i>			0	◎	+++	++	++	++				+
알락꽃하늘소 <i>Jundolia sexmaculata</i>			0	-								
긴알락꽃하늘소 <i>Leptura arcuata</i>			0	-		++	++	++			0	+
열두점박이꽃하늘소 <i>Leptura duodecimguttata</i>							+	+				
범하늘소 <i>Chlorophorus diadema</i>			0	◎	+++	+	+	+				
육점박이범하늘소 <i>Chlorophorus similimus</i>			0	◎	++	++	++	++				
가시수염범하늘소 <i>Demonax transilis</i>				0	+	+	+	+				
사과하늘소 <i>Oberea inclusa</i>			0	-								
별호랑하늘소 <i>Cryoclytus capra</i>			0	-								
포도호랑하늘소 <i>Xylotrechus pyrrhoderus</i>			0	-								
통사과하늘소 <i>Oberea depressa</i>											0	
꽃하늘소 <i>Leptura aethiops</i>											0	
깨다시하늘소 <i>Mesosa myops</i>			0	-								+
남색초원하늘소 <i>Agapanthia pilicornis</i>			0	◎	++	+++	+++	+++			0	+++
알락하늘소 <i>Anoplophora malasiaca</i>			0	-		+	+	+				+

분류군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털두꺼비하늘소 <i>Moechotypa diphyis</i>			0	㉔	+	++	++	++				++
국화하늘소 <i>Phytoecia rufiventris</i>			0	㉔	+++	+++	+++	+++			0	++
임벌레과 Family Chrysomelidae												
아스파라기스잎벌레 <i>Crioceris quatuordecimpunctata</i>			-	0	+							
백합간기슴잎벌레 <i>Lilioceris merdgera</i>						+	+					
등불간기슴잎벌레 <i>Lilioceris scapularis</i>			-	0	+	+	+	+				
베노랑간기슴잎벌레 (노랑배낭색잎벌레) <i>Lema concinipennis</i>			0	㉔	+++	+++	+++	+++			0	++
가시다리큰벼잎벌레 <i>Lema coronata</i>			-	0	+							
홍출큰벼잎벌레 <i>Lema delicatula</i>			-	0	+	+	+	+				
적갈색간기슴잎벌레 <i>Lema diversa</i>			0	㉔	+++	+++	+++	+++				++
점박이큰벼잎벌레 <i>Lema adamsii</i>			-	0	+	+	+	+				
주홍배큰벼잎벌레 <i>Lema fortunei</i>			-	0	+	+	+	+				
붉은가슴잎벌레 <i>Lema honorata</i>			-	0	++	+	+	+				
밤나무잎벌레(검은피코마잎벌레) <i>Physosmaragdina nigrifrons</i>			0	㉔	++	++	++	++			0	++
복한잎벌레 <i>Cryptocephalus confusus</i>			0	㉔	+	+						
광릉잎벌레 <i>Cryptocephalus luridipennis</i>			0	-								
등줄잎벌레 <i>Cryptocephalus parvulus</i>			0	-		+						
금록색잎벌레 <i>Basilepta fulvipes</i>			0	㉔	++	+++	+++	+++				
콩잎벌레 <i>Pagria signata</i>			-	0	+++	+++	+++	+++				
고구마잎벌레 <i>Colasposoma dauricum</i>			-	0	++	++	+	+				
중국청람색잎벌레 <i>Chrysoschus chinensis</i>			0	㉔	+++	+++	+++	+++				+
썩잎벌레 <i>Chrysolina aurichalcea</i>			0	㉔	++	+++	+	+			0	++
좁남색잎벌레 <i>Gastrophysa atrocyanea</i>						+++	+++	+++			0	+++
박하잎벌레 <i>Chrysolina exanthematica</i>			-	0	+	+	+	+			0	
사시나무잎벌레 <i>Chrysomela populi</i>			0	-		++	++	++				+
버들잎벌레 <i>Chrysomela vigintipunctata</i>	0		0	-	우충만 보임	+++	+	+			0	+++
참금록색잎벌레 <i>Linaeidea adamsi</i>			-	0	+	+++	+++	+++			0	+
돼지풀잎벌레 <i>Ophraena communis</i>						+++	+++	+++				+++
적갈색남생이잎벌레											0	
청충보라잎벌레											0	+
발리잎벌레											0	+
버들피코마잎벌레(버들남색잎벌레) <i>Plagiodera versicolora</i>			0	㉔	+++	+++	+++	+++			0	+++
금보날개간기슴잎벌레 <i>Lilioceris gibba</i>			0	-								
아코본스잎벌레 <i>Galeruca reichardtii</i>			0	㉔	++						0	

분류군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파임벌레 <i>Galeruca extensa</i>						+	+	+				++
떨기잎벌레 <i>Galerucella griseocens</i>			0	⊙	++	++	++	++			0	+
일본잎벌레 <i>Galerucella nipponensis</i>				0	+++	++	++	++				
오리나무잎벌레 <i>Agelastica coerulea</i>			0	⊙	++	+++	+++	+++			0	+
외잎벌레붙이 <i>Atrachya menetriesi</i>			-	0	+++							
상아잎벌레 <i>Gallerucida bilasciata</i>						+	+	+				
잔마리잎벌레류1 <i>Luperini sp. 1</i>			-	0								
두줄박이애잎벌레 <i>Medythia nigrolineata</i>			0	⊙	+++	++	++	++				
크로바잎벌레 <i>Monolepta quadriguttata</i>			0	⊙	+++	+++	++	++				
<i>Crepidodera japonica</i>			0	⊙	++							
바늘꽃벼룩잎벌레 <i>Alycia oleracea</i>			0	+++	+++	+	+					
몹시잎벌레 <i>Chaetocnema concinna</i>			0	+++	+	+++	+++					
좁쌀벼룩잎벌레 <i>Manobia parvula</i>			0	+	+++	+	+					
짐날개잎벌레 <i>Nonarthra cyanea</i>			0	⊙	+++	+	+++	+++			0	++
왕벼룩잎벌레 <i>Ophrida spectabilis</i>			0	⊙	+	+	+	+			0	++
황갈색잎벌레 <i>Phygadeuon fulvipes</i>			0	⊙	+++	++	++	++			0	
벼룩잎벌레 <i>Phyllotreta striolata</i>			0	⊙	+++	+++	+++	+++				
홍다리줄벼룩잎벌레 <i>Psyllodes brettehami</i>			0	-								
벼룩잎벌레류1 <i>Alycinae sp. 1</i>			-									
벼룩잎벌레류2 <i>Alycinae sp. 2</i>			-									
노랑테가시잎벌레 <i>Dactylispa angulosa</i>			0	⊙	++	++	++	++				+
금자라남생이잎벌레 <i>Aspidomorpha difformis</i>			0	⊙	+	++	++	++				+
애남생이잎벌레 <i>Cassida praeprata</i>			-	0	++	++	++	++				
루이스큰남생이잎벌레 <i>Thalaspia lewisii</i>			-	0	+	+						+
콩바구미과 Family Bruchidae												
원두콩바구미 <i>Bruchus pisorum</i>			-	0	+	+	+	+				
팔바구미 <i>Callosobruchus chinensis</i>			0	⊙	++	+	+	+				
거위벌레과 Family Atelabidae												
굴참나무털거위벌레 <i>Involvulus rugosicollis</i>			0	-		+	+	+				
댕댕이덩쿨거위벌레 <i>Involvulus plumbeus</i>			0	-								
도토리거위벌레 <i>Mecorhis ursulus</i>	0		0	⊙	+	+++	+++	+++				++
거위벌레 <i>Apoderus jekeli</i>	0		-	0	++	+	+	+				
노랑배거위벌레 <i>Cynotrachelus coloratus</i>			0	⊙	+	+	+	+			0	+
왕거위벌레 <i>Paracynotrachelus longiceps</i>			-	0	++	+++	+++	+++				++

분류군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2
긴나무좀과 Family Platypodidae												
가시나무긴나무좀 <i>Crossotarsus simplex</i>			0	-								
나무좀과 Family Scolytidae												
소나무좀은나무좀 <i>Hylastes parallelus</i>			0	-								
소나무검정좀붙이 <i>Hylastes plumbeus</i>			0	-								
갈색소나무좀 <i>Hylurgops glabratus</i>			0	-								
소나무줄나무좀 <i>Hylurgops interstitialis</i>			0	-								
노랑애나무좀 <i>Cryphalus fulvus</i>			0	-								
솔여섯가시나무좀 <i>Ips acuminatus</i>			0	-								
소나무뿔나무좀 <i>Orthotomicus angulatus</i>			0	-								
복방가문비애나무좀 <i>Pityophthorus jucundus</i>			0	-								





버들하늘소



중국청남색잎벌레



노랑타리먼지벌레



멀리 가까이 더 가까이

다섯 가지 감각 중 시각을 통한 기억 만들기



'톡토기' 선생님

우리의 눈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과 대상 사이를 이동하면서 멀리 또는 가까이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시선으로 다른 어떤 감각보다 적극적인 조작을 할 수 있다. 핵심적 감각기관인 눈으로 이루어지는 감각현상은 경험을 통해 이미 축적되어 있던 것이고, 인간의 본다는 행위는 단지 눈의 물리적인 작용에 그치지 않고 뇌를 통해 지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멍하니 보는 것과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고 시각을 통하여 흡수된 정보들은 개인적 체험에 의해 잔재되어 있는 지각을 바탕으로 하기에 사물을 지각하는 범위는 다양하다. 진정한 의미의 '봄'이란 눈을 통하여 한 부분을 보고도 나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고, 한 사물을 보더라도 개인적 경험에 의해 유추해 내는 이미지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개인이 속한 환경과 생활 속에서 많은 기억을 형성하게 된다. 시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본다'는 행위에서 멈추지 않고 뇌를 통해, 잔재해 있던 의식과 결합해 개인적인 사물로 재창조된다.

- '보기'에 관한 논문 중 발췌 -



인간의 오감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시각을 통하여 길동생태공원을 만나보기 위해 우리의 눈과 감각현상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앞서의 내용으로 우리의 공원을 탐방하며 자연을 만나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을 수 있겠다. 자, 천천히 시선의 움직임에 의지하여 공원을 탐색해 보자. 자연을 가까이하며 소요하기에 알맞은 길동생태공원에서 ‘멀리 보기’와 ‘가까이 보기’ 그리고 ‘더 가까이 보기’의 방법으로 기억을 형성하는 감각활동을 경험해 보고자 한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둥근 세상을 이고 서있는 느티나무가 자리하고 있는 공원의 앞마당을 눈으로 훑으며 지나노라면 공원 안내소와 자원활동가 사무실이 눈앞에 들어온다. 입구에서 바라 보이는 왼쪽에는 길동지기들이 탐방객을 맞아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활짝 웃던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 파고라와 그 아래에 늘어선 나무의자들이 보인다. 많은 시간 동안의 기억들을 나의 주관적인 이미지로 오버랩하여 본다. 이것이 시지각 활동의 의미이다.

시선을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소나무 군락 사이로 조류관찰대가 서있다. 관찰대의 일부인 네모 형태의 관찰 구멍 너머로 공원 습지의 풍경을 볼 수 있는데 구멍 사이로 넘겨다 보는 습지의 모습은 시점의 차이로 인해 색다른 느낌을 받는다. 언젠가 그 네모를 눈 삼아 카메라로 찍은 멋진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새로운 시각으로 포착한 자연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

었다. 새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시야를 가리므로 답답할 수 있었던 시선을 그 작은 구멍 너머로 더 멀리 이끌어서 멋진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했을지 궁금해진다.

파고라 옆의 작은 길에서 경사가 완만하여 비스듬히 아래로 이어지는 시점에 서서 ‘멀리 보기’의 방법으로 시선을 옮겨가며 공원의 전경을 눈에 담아 본다. 먼저 지형상 산으로 보이는 길동 숲(길숲)의 가장자리 선을 따라 눈을 움직여 보고, 습지지구와 버드나무 군락이 만드는 부드러운 선을 그곳이 바라본다. 봄에는 연한 녹색의 선으로, 여름에는 좀더 짙푸르고 화려한 선으로, 가을에는 알록달록 아름다운 선으로, 겨울에는 무채색에 가깝다가 가끔은 흰색을 두른 선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계절마다 다르게 보이고 날씨에 따라 달리 보인다. 비가 온 후엔 안개구름이 내려앉아 높은 산이 부럽지 않은 모습이 된다. 눈이 오거나 바람 불 때의 모습이 다르며 햇빛과 구름의 영향으로 변화무쌍하다.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여도 그 모습에 반할만한데 그 속에서의 기억을 함께 풀어 놓으면 무궁무진한 즐거움과 행복이 퍼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 기억을 만드는 데에 시각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느끼며 그것을 두뇌에 저장할 수 있었던 경험의 결과인 것이다.

멀리보기와 함께 가까이 보기의 방법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볼 때는 그저 멍하니 겉모습만을 보지 말고 대상에게 의미를 두고 의미 있는 보기를 할

것을 권한다. 유의미한 활동으로서의 보기에서 기억형성이 더욱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간에 의미가 있는 봄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곤충도감을 만들기 위해 메뚜기를 자세히 보거나 자신의 손에 똥을 찼던 메뚜기를 잡았던 경우가 풀숲에서 메뚜기가 뛰는 모습을 그저 지나쳐 본 경우보다 훨씬 자세히 기억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고 좀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약간의 도구를 이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눈으로 여러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대상을 볼 수 있다. 3D안경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3차원의 입체영상을 우리는 지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사물에 점점 가까이 대면 댈수록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무엇인지 구별을 할 수 없게 된다. 가까이에서, 좀더 가까이에서 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카메라이다. 1cm도 되지 않을 거리에서 접사가 가능해진 까닭에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부분까지 포착할 수 있고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이 사물을 확대해서 볼 수 있다. 우리의 눈이 입체적이고 지속적인 상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카메라의 렌즈는 한 시점에서 순간적으로 상을 담아내기 때문에 사진은 평면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지각은 그것을 입체영상으로 기억하고 재창조하게 되어 사진 속의 사물이 더욱 멋져 보이는 것이다.





프로그램 소개

“도시, 생태를 꿈꾸다”

길동생태공원이 문을 연 지 14년, 그간 생태 프로그램 운영의 모범으로, 생태공원 조성의 틀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바쁜 도시 생활에서 공원은 찾는 시민들에게 일상의 자신이 자연의 일부로서 돌아볼 수 있는 생태의 삶에 대하여 고민할 기회를 주었는지는 의문이다.

2013년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또한 개원한 지 15년이 되는 내년에 워크숍을 준비하며, 생태공원의 모델로서 길동생태공원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생태의식으로의 전환, 행동하는 에코시민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고자, 주제를 “도시, 생태를 꿈꾸다”라고 정하였다.

올해는 특별히 생태적인 삶, 생태문화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의 수용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생산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본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이나마 변화를 주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기본방향

- 해설, 관찰, 문화, 놀이 분야로 프로그램의 성격별 유형화
- 참여 대상의 연령층 확대
- 스스로 관찰자를 위한 참여형 공간 구성

2013년 운영 계획

1. 성격별 프로그램 재분류

지금까지, 생태학교, 관찰&체험교실, 특별, 문화센터로 구분하던 것을 프로그램의 운영 성격별로 생태해설, 생태관찰, 생태문화, 생태놀이로 구분하였다.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프로그램 중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뺐고, 문화와 놀이 쪽으로 프로그램을 늘렸다. ★ 표시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1) 생태해설

공원 운영 프로그램의 근간으로 꾸준한 참가자가 있지만, 한편 자주 찾는 탐방객에게는 다소 식상할 수 있어, 프로그램명을 변경하고, 내용도 참여자가 직접 제작, 수집, 명상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부생태학교의 경우 원하면 향후 길동생태공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No	프로그램명	봄	여름	가을	겨울
1	행복한 토요생태학교(놀토)	●	●	●	●
2	나는 자연탐험개!	●	●	●	●
3	주부생태학교	●	●	●	
4	청소년 자연관찰	●	●	●	
5	열린 생태학교	●	●	●	●
6	해너미관찰(특별)		●		





2) 생태관찰

공간 꾸준한 생물종조사에 근거를 두고 다양한 생물이 주로 관찰되는 계절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른 공원에서 봉사자에 의하여 운영이 쉽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길동의 장점이다.

(예 : 식물혹의 세계, 버섯 등)

생물종 분류와 생태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채집하여 관찰할 기회를 늘린 예정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 의도를 따를 수 없을 만큼 참가자의 연령이 맞지 않는 게 문제점이다. 앞으로 꾸준한 홍보로 개선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허 공원의 주요 탐방로인 습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예 : 개구리, 잠자리, 물속곤충, 반딧불이, 왕거미(주로 긴호랑거미) 등)

최근 분류학 연구가 저조해지는 형편이나, 기초 과학으로서 또한 아이들의 흥미를 줄 수 있는 자연물로서 분류는 반드시 필요하며, 자연에서 살아 있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히 관찰하는 것을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 진행해야할 부분이다.

No	프로그램명	봄	여름	가을	겨울
1	신나는 길동생태학교(놀토)	●	●	●	
2	신명나는 4학년	●		●	
3	야생화관찰	●			
4	버섯의 신비			●	
5	식물혹의 세계	●	●	●	
6	길동의 상징, 잠자리	●	●	●	
7	물속곤충관찰		●		
8	개구리의 한살이	●			
9	사계절 곤충관찰	●	●	●	●
10	곤충의 겨울나기				●
11	반딧불이와의 만남(특별)	●	●		
12	왕거미의 생활사		●	●	
13	길동 조류관찰	●	●	●	●

3) 생태문화

올해 주제에 맞춰 중점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문화센터를 포함하여 논, 밭 체험, 세시풍속, 천연염색, 힐링 프로그램 등 우리 옛 선조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갔던 체험을 함께 해보고자 기획하였다. 특히 봄에는 화전 만들기 대회를 개최하여, 좀 더 많은 참여자들에게 전통 놀이를 재현하고자 하였고, 가을철 풍국놀이는 작년에 인기가 좋아 올해는 확대 운영하며,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국화를 이용한 퓨전 요리를 쿠킹해 보려고 한다.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크게 프로그램명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계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켰으며, 조금씩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날씨가 좋지 않은 우기나 겨울철에는 공원보다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No	프로그램명	봄	여름	가을	겨울
1	텃밭가꾸기(힐링)	●	●	●	
2	모내기, 벼베기 체험(특별)	●		●	
3	짚풀공예				●
4	열두달 천연염색	●	●	●	●
5	세시풍속(특별)	●	●	●	
6	똑딱똑딱 소품 만들기(문)	●	●	●	●
7	자연창의교실(놀토, 문)	●	●	●	●
8	길동 예코 공방(문)	●	●	●	●
9	길동생태아카데미(문)	●	●	●	
10	시민녹화교실(문)	●		●	
11	도시의 어린 농부	●	●		
12	오후의 힐링캠프	●	●	●	

2010년부터 매월 셋째주 길동생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와 일반 시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연과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획하였다. 올해는 최근 자살율이 급증하고 우울증이 심각한 만큼, 자연에서 마음을 치유하고자 마음치유라는 큰 주제로, 강사를 섭외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놀이 분야의 프로그램을 많이 신설한만큼 생태놀이 관련 교육도 추가하였다.

4) 생태놀이

아이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서 예전에 비해 창의성, 영감,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다. 공원에서는 미디어나 장난감없이도 자연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재미와 모험, 체험과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3-6세는 마법의 나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온갖 풀, 나무, 해, 돌멩이와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상상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을 친숙하게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숲유치원의 경우 7세(만5세 누리과정)로 한정하여 인근 유치원과 협의하여 계절마다 공원을 찾도록 하고, 만 5세에 맞게 프로그램화 한다.

No	프로그램명	봄	여름	가을	겨울
1	길동 숲유치원	●	●	●	
2	엄마랑 함께 하는 촉감놀이	●	●	●	
3	행복한 생태놀이	●	●	●	
4	유아 곤충관찰	●	●	●	
5	나만의 티셔츠만들기			●	
6	민들레 생태학교	●	●	●	
7	러닝 앤 프레이밍(방학특집)		●		●



2. 참여 대상의 연령층 확대

공원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연령을 초교생으로 정해도 7세 이하 유아와 보호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유아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늘리고, 초교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주말에 운영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년 프로그램을 다시 연령별로 정리하여 인터넷에 공지하며, 참가자가 아이들의 연령을 감안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어길 경우 참여를 제한시키도록 한다.

한편 중고교생을 위한 청소년 자연관찰은 전화접수를 이용하며, 원하는 만큼 운영횟수를 증가할 계획이다. 생태해설로 분류하였으나, 과도한 학습에 지친 아이들에게 심신의 위로를 줄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 되고자 한다. 참여자가 많은 반딧불이와의 만남이나 개구리관찰교실은 연령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실버층도 다수 공원을 이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참여형 프로그램화

스스로관찰자의 경우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밋밋할 수 있다. 특히 봄, 가을로 어린이집 단체가 많이 찾고 있어 보호자가 있는 경우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놀이공간을 확보하려고 한다.

첫 번째, 자연 아틀리에인데 작은 돌부터 큰 돌, 진흙, 낙엽 등을 고루 준비하여 아이들 스스로 자연미술가가 되어 보도록 한다.

두 번째, 전래놀이터. 어려서 놀던 사방놀이, 달팽이놀이, 비석치기 등을 위한 구획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자유로이 놀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공동작품 만들기. 항공사진을 보아도 보일 수 있을만큼 큰 조형물(예 : 잠자리나 뱀)을 만들 수 있도록 나무토막을 한쪽에 쌓아놓으면 조금씩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작은 나무토막에 그림을 그리게 하여 광장지구엔 건물 한쪽 벽면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3년 프로그램 연령별 구분

	유아	초교	초교3-6
봄	야생화관찰, 개구리의 한 살이 엄마랑 함께 하는 촉감놀이 유아곤충관찰(무당벌레) 숲유치원(5세 누리과정)	개구리의 한살이 식물혹의 세계	오후의 힐링캠프 사계절 곤충관찰(딱정벌레목) 신명나는 4학년 행복한 토요생태학교 신나는 길동생태학교
		똑딱똑딱 소품만들기(연필통) 자연창의교실(지관공예) 길동예코공방(천연비누)	
여름	행복한 생태놀이 유아곤충관찰(사마귀) 숲유치원(5세 누리과정)	길동의 상징, 잠자리 물속곤충 식물혹의 세계	여름방학특집 Why 오후의 힐링캠프 사계절 곤충관찰(잠자리목) 행복한 토요생태학교 신나는 길동생태학교
		똑딱똑딱 소품만들기(부엉이) 자연창의교실(가죽액자) 길동예코공방(모기퇴치제, 림밤)	
가을	유아곤충관찰(메뚜기)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숲유치원(5세 누리과정)	버섯의 신비 식물혹의 세계	거미 풍국놀이 오후의 힐링캠프 사계절 곤충관찰(메뚜기목) 신명나는 4학년 행복한 토요생태학교 신나는 길동생태학교
		똑딱똑딱 소품만들기(자연액자) 자연창의교실(만다라) 길동예코공방(주방세제)	
겨울		입춘방 쓰기	곤충의 겨울나기 얼음이 놀자 조류관찰교실
		똑딱똑딱 소품만들기(솜대) 자연창의교실(연하장) 길동예코공방(천연비누)	

	중·고교	성인	누구나
봄	청소년 자연관찰	주부생태학교	폐목활용 상자텃밭만들기 모내기 화전대회 단오행사 일요가족 나들이 열린 생태학교 열두달천연염색 민들레생태학교(장애인)
		길동생태아카데미 시민녹화교실	
여름		주부생태학교	해너미관찰 반딧불이와의 만남 일요가족 나들이 열린 생태학교 열두달천연염색
		길동생태아카데미	
가을	청소년 자연관찰	주부생태학교	추수하기 일요가족 나들이 열린 생태학교 열두달천연염색 민들레생태학교(장애인)
		길동생태아카데미 시민녹화교실	
겨울			일요가족 나들이 열린 생태학교 열두달천연염색



길동이 좋아요



체험하며 자연을 배우는 길동생태공원 나들이

photo by anndam.blog.me

마리안

블로그 <http://anndam.blog.me/1016058364>에서 퍼왔습니다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생태공원을 찾아 가는길.
5호선 길동역에서 내려 걸어서 공원까지 갔는데요.
15~20여분 걸으니 쉬 당더라고요. 버스타고 가는 방법
도 있겠지만 날이 좋을 때는 걸어도 충분히 다녀올 거
리였습니다. 길동생태공원은 자연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으로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가볼만한 곳이구요.
사전예약제로 입장가능한 곳입니다. (매주 월요일 쉬)



습지를 돌아돌아 습지에서 사는 생물들도 관찰을 하구요. 습지에서 사는 식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도 관찰하구요. 독특하게 생긴 참자리가 날아다니고 소금쟁이가 물위를 걷고.. 보이는 것들이 다 신기한지, 이것봐라 저것봐라 하면서 걸음은 더없이 느려지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쓰러뜨릴 듯이 불어대는 바람도 습한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어 줍니다. 스탬프를 열심히 찍는 조카는 흐뭇한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내판이 없어서 이렇게 둔건가 했더니... 일부러 거울로 만들어 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거울로 푸른 잎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굳이 위로 고개를 들어서 힘들게 쳐다보지 않아도 거울속에 나뭇잎이 담겼더라고요. 관찰은 생각인 듯 합니다.



예약을 하고 입장을 하면 시간대별로 생태공원 해설을 해주는 듯합니다. 같이 온 가족분들은 해설해 주시는 분과 함께 걸으면서 생태공원의 이모저모를 듣고 걸으시더군요.

공원이용안내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입장시간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회 이용인원은 스스로 관찰 30명 이내, 프로그램은 15명 이내.
1일 최대 입장인원 300명 이내
공원이용 예약안내 <http://parks.seoul.go.kr> 문의 02-427-2770





길동생태아카데미를 다녀와서...

최은주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여 길동생태문화센터 2층에 방문하였습니다.

[자연해설과 랜드아트]라는 제목으로 길동생태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했지요~^^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리고, 자연에 있는 자연물을 통해 표현하고~ 이를 통해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던 시선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나는 인위적인 것을 어색하게 만들어가지 않았나...’

다시 되돌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좋은 교육 너무 감사합니다~*





생태공원, 정~~말 좋아요

장동숙

생태공원을 지나다 ‘아이들과 가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홈페이지 접속했는데, 예약을 해야한다기에 ‘무슨 공원을 예약을 하고 가나’ 생각했지만 이유를 알고 수긍할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태공원과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잠자리 관찰, 거미관찰, 자연염색....세번이나(?) - 예약하기 힘들다고들 하시던데... 전 운이 좋았죠- 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었네요.

프로그램에 참여할때마다 아이들과의 추억이 하나씩 쌓이고, 자연을 관찰하고, 알아가고... 완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길동생태공원 이용후기에서

곤충도감



우리들은 길동생태공원에 살고 있어요.



노랑나비



노랑나비 *Colias erate*



- 인시목 흰나비과
- 콩과인 들콩, 토끼풀에 알을 낳는다.
- 집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다.
- 민들레, 토끼풀, 엉겅퀴 등 들꽃에 자주 모인다.
- 수컷은 날개가 노란색이나, 암컷은 흰색과 노란색이 있다.

갈색날개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 *Plautia stali*



- 노린재목 노린재과
- 3월부터 11월까지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다.
- 어릴때는 주로 잎 뒷면에서 즙을 빨다.
- 어른벌레는 과식을 좋아해 농부들은 싫어한다.
- 초록색에 광택이 있어 아름답다.
- 잡으면 고약한 노린내를 풍긴다.

된장잠자리



된장잠자리 *Pantala flavescens*



- 잠자리목 잠자리과
- 성숙하면 황갈색을 띠는데, 꼭 '된장'같은 색상을 띤다.
- 아열대성 곤충으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살다가 겨울을 넘기지 못한다.
- 여름이후 전국에서 볼 수 있다.

끝검은메뚜기



끝검은메뚜기 *Stethophyma magister*



- 메뚜기목 메뚜기과
- 주로 축축한 풀밭에 살아 공원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
- 앞날개를 뒷다리에 비벼 '츠츠츠츠' 짧은 소리를 낸다.
- 벼과 식물을 먹고 6~8월중 주로 보인다.

왕벼룩잎벌레



왕벼룩잎벌레 *Ophrida spectabil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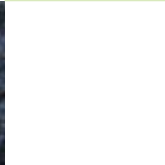
- 딱정벌레목 잎벌레과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잎벌레
- 애벌레는 붉나무과의 잎을 먹고 자란다.
- 애벌레는 자신의 똥으로 몸을 덮고있어 더러워 보여 자신을 보호한다.

2013 봄·여름



펴낸이	서울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순환
편집인	조경지원과장 김재중
편집실무	곽동훈, 김귀이, 김지연
발행	2013년 5월
연락처	02)472-2770, 472-2799 parks,seoul.go.kr
인쇄	현진디자인인쇄(02-2268-8613)

[비매품]



길동생태공원
<http://parks.seoul.go.kr>